

‘버라이어티 예능’ 명가 이름값 한다



3월 9일(목) 첫 방송

2023년 예능의 최대 기대작 <수학 없는 수학여행>(연출: 최보필)이 3월 9일(목) 첫 방송된다.

<수학 없는 수학여행>(이하 <수수행>)은 수학여행지에서 특별한 미션과 색다른 게임을 수행하며 펼쳐지는 여섯 남자들의 낭만 있고 수학 없는 무지성 버라이어티 예능이다. 멤버들은 눈이 쌓인 일본 홋카이도를 배경으로 상상초월 기발한 미션을 수행하며 큰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여섯 멤버로는 도경수, 지코, 크러쉬, 최정훈, 이용진, 양세찬이 출연한다. 이 중에서 이용진, 양세찬을 제외한 도경수, 지코, 크러쉬, 최정훈은 ‘32세 동갑내기’로, 이번이 첫 고정 버라이어티 도전이다.

그룹 ‘엑소’의 메인보컬이자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배우로도 중형무진 활약 중인 도경수, 최근 가장 뜨거운 화제를 모은 ‘새뽕’ 챌린지로 대중문화를 선도 중인 프로듀서 겸 아티스트 지코, 신곡 ‘러쉬 아워’로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구며 음원 강자임을 다시금 입증한 크러쉬,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라 불리는 잔나비의 최정훈이 뭉친 것만으로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간 버라이어티 예능에서 볼 수 없었던 핫하고 신선한 얼굴들이 대거 등장하는 만큼, 이번 <수수행>을 통해 또 한 명의 ‘예능 스타’가 탄생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증폭된다. 또한 MZ세대가 사랑하는 예능인 이용진, 양세찬이 이들과 함께 어떤 시너지와 예능 감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여섯 멤버의 생생한 촬영 현장 소식은 공식 인스타그램(@nomath_schooltri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공식 로고도 특별하게 제작되었다. 웹툰 작가 겸 대세 스트리머 침착맨이 직접 제작한 로고에는 글자마다 다른 표정의 얼굴들이 담겨 소위 ‘킹받는다’ 침착맨 특유의 B급 감성이 잘 살려져 있다. 로고 속 생동감 넘치는 표정들이 <수수행>이 선보일 새롭고 강렬한 재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연출을 맡은 최보필 PD는 <런닝맨>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어낸 PD인 만큼 이번엔 어떤 색깔의 버라이어티 예능을 만들어낼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최보필 PD는 “색다른 조합으로 뭉친 여섯 멤버들의 웃음 시너지로 목요일 밤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버라이어티 예능 명가’ SBS의 계보를 이을 <수학 없는 수학여행>은 3월 9일(목) 밤 9시에 첫 방송된다.





“우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미지 확실히 굳히겠다”

- 이상욱 보도국장

어려운 시기에 보도국장이 되었다.

그동안 SBS 뉴스가 2049시청률 1위에 디지털에서도 제일 앞서나갔는데 MBC가 많이 따라왔다. MBC가 현 정권에 가장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진영 팬덤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2049뿐만 아니라 최근엔 586세대인 50대도 MBC를 많이 보는 것으로 나온다. 이래저래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 단순히 뉴스 품질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상황과 맞물려서 벌어지는 일이라 쉽지 않다. 뉴스를 잘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공정, 중립을 견지하면서 객관적인 기사를 써 왔던 SBS의 이미지는 굉장히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네 편이 아니라고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공격받을 때도 많지만, 오히려 이 이미지를 더 확고하게 굳혀야 한다.

보도국장으로서 목표는?

전체 저널리즘 속에서 우리 SBS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늘려나가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이자 임무다. 시청자 수나 2049시청률, 전체시청률에서 다시 초격차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또 그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8 뉴스> 중심으로 보도국의 역량을 투입해 왔지만, 이제 <8 뉴스>를 꼭짓점으로 하는 편대비행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TV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포털, SNS 등 디지털로 펼쳐지는 다양한 공간 속에서 SBS가 뉴스를 전달하

는 방법을 각각 개발하고 적응해서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작년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었고, 이를 정착시켜 나가는 게 저의 또 다른 임무다. 여러 디지털 플랫폼에서 SBS 뉴스들이 확실하게 1등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경주할 것이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나 스포츠 빅 이벤트가 없어서 우리 콘텐츠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8 뉴스> 중심으로 이뤄졌던 아침 회의에 2월 1일부터 D뉴스플랫폼부, 일반뉴스부도 참석하고 있다. 뉴스 기획 단계부터 디지털화를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기자들에게 주문하는 게 있다면?

취임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했다. 우리의 중립적인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취재, 제작해야 한다는 것, TV 외의 플랫폼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라는 것이다. 요즘 젊은 기자들은 주연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코너 아이디어를 디지털적인 요소들과 접목해 내달라고 주문했는데 아직 눈에 띄는 건 없지만 계속해서 독려할 생각이다.

또 하나, 우리 방송기자들은 영상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전달, 즉 뉴스를 영상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경쟁사에 비해 앞서나가지 못한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 텍스트를 자료 그림 붙여서 죽죽 읽어주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현장의 한가운데로 뛰어든 거 같은 느낌을 주는 영상뉴스는 꼭 필요하다. 뉴스를 소구력 있게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한마디

사우들이 어디 가서든 SBS 뉴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게 만들겠다. 시청률이나 구독자 수 등에서 오는 위기의식은 저만 갖고 있으면 된다. 우리 조직은 안 가졌으면 한다. 시청률이나 조회 수는 수많은 현상들이 모여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뉴스의 모든 가치를 나타내는 잣대가 될 수 없다. 다만 제가 신경 쓰는 이유는 결과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수치라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결과가 안 좋으면 조직이 다운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언론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 분발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직원들에게 힘 빠지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다.

100% 리얼 수사멘터리 **국가수사본부** 웨이브 오리지널로 공개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이야기를 담은 <국가수사본부>가 웨이브에서 3월 3일(금) 첫 공개된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경찰제도의 대대적 개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신설됐으며, 일선 경찰서의 수사 관련 경찰관 3만여 명이 소속된 매머드 조직이다.

이를 최초로 밀착 취재한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의 24시간을 치열하게 그려낸 ‘리얼 탐사 추적극’이다. 해당 기관에 소속된 전국의 형사들이 살인, 강도 등의 강력 범죄에서부터 절도, 마약과 보이스피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을 신고 받고 출동해서 추적, 검거하는 실제 과정을 기록했다. 제작은 서울, 경기, 강원, 전라, 광주, 부산 등 국내 전역에서 9개월여에 걸쳐 이뤄졌고 13부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그것이 알고 싶다>와 그알 채널로 이름을 알린 배정훈 PD의 신작이자 첫 OTT 연출작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것이 알고 싶다>로 이미 증명된 진정성에 웨이브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OTT의 강점을 더해 이보다 더 리얼할 수 없는 리얼 다큐 수사멘터리를 보여줄 예정이다.

웨이브 오리지널로 공개되는 것에 대해 박상욱 시사교양국장은 “SBS가 다양한 플랫폼의 시청 니즈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일 잘 만들어내는 기업임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배정훈 PD는 “전례 없이 경찰청의 전폭적인 협조를 얻어서 제작했고, 수사 과정을 이렇게 근거리에서 촬영한 것은 저 역시 처음이다.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부서탐방



전국을 누비는 '특공대'

- 보도국 사회부 네트워크팀

외부 인사와 명함을 주고받을 때 흔히 듣는 말이 있다. “사람들과 네트워킹 많이 하시나 봐요.” 명함만 보고선 도통 무슨 일을 하는지 외부인은 쉽게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SBS 사회부 네트워크팀이다. 쉽게 말하면 예전의 '전국부'다. 지금은 사회부 안에 시민사회팀, 법조팀과 한 식구이기도 하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뉴스를 담당한다. 지역에서 대형 이슈가 발생한 경우 팀 소속 기자들이 직접 발로 현장을 뛰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1보는 주로 9개 지역 민방들이 담당한다. 네트워크팀은 지역 민방들과 그물망처럼 촘촘히 얽혀서 지역 발생 뉴스를 담당하는 셈이다. 제주 지진, 광주 아파트 붕괴, 동해안 산불, 태풍 힌남노, 대구 변호사실 방화 참사,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등 지역 발생 대형 사건·사고를 <SBS 8 뉴스>에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분초를 다투기도 한다.

네트워크팀은 서울시청과 행정안전부도 담당한다. 작은 정부라 불리는 서울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행정안전부를 출입처로 두고 있다. 지난해 행안부에 경찰국 조직이 신설되면서 경찰 고위 간부 인사와 경찰 사무에 대한 일도 맡게 됐다. 전국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지만, 팀원은 일당백 특공대나 다름없다. 베테랑 장선이 기자와 유덕기 기자가 시청, 행안부를 휘어잡고 있고, 올해 대학을 졸업한 막내 기수지만 10년 차에 버금가는 능력을 발휘 중인 열혈남아 김민준 기자가 전국을 누빈다. 목동 사옥에서는 볼 수 없지만, 전국에서



김민준

장선이

유덕기

송인호 팀장

맹활약하는 팀원들도 있다. 세종지국 이용식 부장, 강원지국 조재근 부장, 부산지국은 홍승연 기자가 담당하고 수도권 뉴스를 위해선 의정부지국 서쌍교 부장, 성남지국 유영수 부장, 수원지국 한주한 부장이 방송 재허가에 필수적인 수도권 뉴스 생산을 책임진다. 영상취재를 맡는 정경문 차장(부산), 김민철 기자(세종), 허춘 차장(강원), 인필성 차장

(의정부), 임동국 차장(인천)도 든든한 팀원이다.

네트워크팀은 '특공대'다. 취재, 영상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기자들이 현장을 누비며 살아있는 뉴스를 만들고, 지역 대형 재난 사건·사고가 터지면 망설임 없이 달려가 송곳 같은 취재로 경쟁사를 압도한다. 1등 방송을 위해 최고의 프로들이 포진한 네트워크팀의 활약은 올해도 계속된다.

티빙과 첫 협업 사례 탄생!



티빙에서 공개



SBS가 새 OTT 예능 프로그램 <브로마블>을 선보인다.

<브로마블>은 세계적인 도시 두바이에서 '현실판 부루마블' 게임을 통해 여행을 즐기는 버라이어티 예능이다. 주사위를 굴려 도착한 도시를 구매하고, 다른 플레이어의 도시에 걸릴 경우 통행료를 지불하는 보드게임 '부루마블'을 모티브로 탄생했다. 돈 맛 아는 어른들을 위해 초대형 스케일로 판을 키운 <브로마블>에는 그에 걸맞은 초호화 출연진들이 출격한다. <집사부일체>, <편먹고 공치리> 등에서 활약한 이승기, <런닝맨>의 '베테랑 예능인' 지식진을 비롯해 배우 유연석과 이동휘, 가수 규현, 세븐틴 조슈아와 호시가 '현실판 부루마블' 체험을 위해 뭉쳤다.

이들은 두바이 랜드마크들을 배경으로 사방이 모래뿐인 사막 한가운데서 버티기부터 파산 후에 땀 한 톨 없이 여행하기, 무인도에서 탈출하기 등 예측불허의 다양한 상황들을 겪으며 우정과 돈, 모두를 거머쥌 수 있는 최종 우승에 도전한다.

특히, <브로마블>은 이례적으로 국내 주요 OTT인 '티빙'에서 공개된다. 사상 최초로 진행된 SBS와 티빙의 협업 프로젝트 '브로마블'은 SBS 간판 예능 <런닝맨>을 함께했던 이흥희 PD가 연출을 맡았다.

이흥희 PD는 “최근 지상파와 OTT의 협업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성공 사례들이 나오면서 <브로마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걸 체감한다. SBS가 제작하니까 역시 다르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브로마블>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SBS의 콘텐츠 경쟁력을 또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방송가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브로마블>은 올해 상반기 중 티빙에서 공개된다.

‘리빙 레전드’ 이대호, WBC 해설위원으로 나선다

3월 9일(목) 호주전부터 2023 WBC도 SBS와 함께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SBS 해설위원으로 나선다.

지난해, 22년 동안의 야구 인생을 마감한 이대호는 이순철 해설위원, 정우영 캐스터와 호흡을 맞춰 대한민국 경기를

포함해 주요 경기를 중계 방송한다.

이대호 해설위원은 “응원단장의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서 목청을 높ی겠다”며 “시청자분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설할 것이며, 현장의 생생함도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고 해설위원에 도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대호는 KBO 롯데 자이언츠뿐만 아니라 일본 프로야구(NPB) 오릭스 버팔로스,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활약한 대한민국 야구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태극마크도 8번이나 달고 WBC 3회(2009, 2013, 2017), 2006 도하 아시안게임, 2008 베이징 올림픽,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5 프리미어12 등 국제 대회에서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맹활약했다.

특히, 이대호는 현역 시절 한일전에서 유난히 펄펄 날아 이른바 ‘일잘알’로 불린다. 2006 도하 아시안게임과 2008 베이징 올림픽 일본전에서 홈런을 때려냈고, 2015 프리미어12 일본과 준결승전에서는 3대2로 뒤지고 있던 9회 초에 역전 결승타를 터뜨리며 도쿄대첩의 명장면을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이대호 해설위원은 “이번 대회에서도 한일전이 가장 기대된다”며, “후배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통쾌한 승리를 거두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B조에 속한 대한민국 대표팀은 3월 9일(목) 낮 12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1라운드 호주와의 첫 경기에 나서며, SBS는 이순철, 이대호 해설위원과 정우영 캐스터가 중계한다.

김수형의 글로벌 인사이트 조계창 국제보도상



‘김수형의 글로벌 인사이트’가 한국기자협회와 연합뉴스가 공동 제정해 올해로 13화째를 맞은 ‘조계창 국제보도상’을 받았다. 조계창 국제보도상은 한국기자상의 국제보도 부문으로 SBS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김수형의 글로벌 인사이트’는 글로벌 주요 이슈를 집중 조명해 2022 올해의 생명과학보도상, 2022 168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2022 보건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22 BJC 올해의 방송기자상 심사위원상 등을 휩쓸었다. 시상식은 2월 22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상한 나라의 레베카’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이달의 PD상



김종일 PD협회장

정재원 PD

이승미 작가

〈SBS스페셜〉 ‘이상한 나라의 레베카’(연출: 정재원, 작가: 이승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다. 또한 PD협회가 주는 274회 이달의 PD상도 수상해서 기쁨이 배가 됐다. ‘이상한 나라의 레베카’는 해외 입양인들의 혈연 찾기 과정을 추적하면서 해외 입양 문제의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친부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으로 시작되어 맺어진 또 다른 만남을 입체적 구성과 정제된 교차 편집을 통해 따뜻하게 바라봤다. 시상식은 각각 2월 15일(수)과 2월 8일(수)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연속 단독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정운식

홍영재

김아영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연속 단독보도’(김태훈, 김아영, 정운식, 홍영재, 김학휘, 한성희)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다.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연속 단독보도’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서 확인된 우리 군의 대응 및 방어 능력에 관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으면서 변화하는 무기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 역량 확보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시상식은 2월 22일(수) 방송회관에서 열렸다.